누구나 평생 기껏 한 가지 하다 간다

(열왕기상 7:1~51)

1.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십삼 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13.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14.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15.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십팔 규빗이라 각각 십이 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23.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십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삼십 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27.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40.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

48.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단과 진설병의 금 상과

51.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무척 긴 본문의 단락별로 첫 구절만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전건축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되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누구나 평생 기껏 한 가지 하다 간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누구나 평생 기껏 한 가지 하다 간다’

요즘 인터넷 상에서 떠오르는 뉴스가 있는데 미국의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의 박 병호 야구선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타격부진을 몇 개월째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마이너리그로 강등을 당했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선수로 활동하는 분들의 잘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손 흥민 축구선수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영국으로 옮겨서 토트넘 팀에 있는데 부진해서 방출을 당할 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밤낮 야구만 하고 축구만 하는데 그렇게 안 될까 싶습니다.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들도 하는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공을 차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츠하크 펄만은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유대계 미국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71세 된 그 분도 기껏해야 네 줄로 된 악기에 손가락을 얹고 현을 켠 것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별것 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실 것인데 다른 것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은 요3:14~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16절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의 반복입니다.

장대 위의 놋 뱀은 보는데 의미가 있었으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어떻게 하느냐? 생활화가 믿음인데 삶의 현장에서 모든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메시나 호날두가 평생을 축구공을 몰고 다니는 것처럼 선민은 십자가 생활화 기껏 한 가지 평생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은퇴해도 코치와 감독으로 살아갈 것인데 기껏 축구공 하나 만지다 가는 것입니다. 선민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셔서 나의 죽음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 한 가지만 하면 축구는 누가하고 피아노는 누가 치고 장사나 사업은 누가 하느냐고 반문하실 것인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갈2: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초단위로 죽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돈 걱정이 생기면 무조건 죽어야 합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돈 버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걱정할만한 경제문제 앞에서 죽는 것인데 이것 한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축구 하나 잘 하면 유명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생활화 하나 잘 할 때에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성전건축이 곧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그 당시의 성전은 번제를 드림으로 마음의 성전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십자가 생활화의 의미가 예표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단 하나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생활화를 앞서 하도록 시키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7년 성전건축이 마쳐지고 13년 왕궁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건축 때에 지성소의 법궤와 두 그룹은 만들었지만 12절까지는 성소에 안치될 기구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뜰 바깥의 두 기둥도 아직 언급이 없고 뜰의 번제단과 큰 바다와 열개의 물그릇과 희생제물의 피를 담을 대야나 부삽 등도 아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의 왕궁건축을 12절에서 끝내고 다시금 성전의 두 기둥과 성소의 기구들과 뜰의 번제단과 그와 연관된 물건들을 만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전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왕궁건축을 앞뒤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등대와 떡상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지 않고 13년을 보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이나 번제단에서 종사하는 제사장이 몸을 씻는 물을 담는 바다나 제물을 씻는 열개의 물두멍과 같은 것들도 13년 후에 왕궁이 지어진 다음에야 만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13년 동안이나 활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성전건축을 하면서 두 기둥도 세우고 모든 기구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궁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는 7년의 성전공사를 둘로 나누어서 그 사이에 13년 왕궁건축 이야기를 끼워 넣었는데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궁에서 살 때에 하는 일은 오직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큰 구획상 성전과 왕궁은 붙어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두 건물을 접해서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바라볼 때에 솔로몬 왕이 가졌던 마음가짐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은 10m가 넘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시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평생 할 일로서 성전을 바라보기만을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바라보는 동안에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만을 바라보려니 솔로몬 왕도 사람인지라 나라 일에 대한 걱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돈 건강 자녀 가정 승진 결혼 등 온갖 문제가 다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걱정될 때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야긴과 보아스를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러실 능력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왕으로서 다스릴 나라를 등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를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큰 바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몸을 씻고 번제단에서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활동을 위해서는 물로 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으로 나는 세상일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하던 일을 그만 두는 것입니다. 소매치기가 손을 씻었다면 더 이상 소매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소매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는 그러한 뜻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 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일을 소매치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일로부터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몸을 씻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일에 대해서 마음 씀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개의 물두멍'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성전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우선 야긴과 보아스를 보고 세상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개의 물두멍은 번제물을 씻는 용도입니다. 이를 통해 내가 더러워졌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려는 일을 내가 세우려하고 능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내가 자녀의 문제와 결혼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승진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렵혀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성소에 법궤와 그룹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와 있어야 하고, 내 마음은 그룹이 상징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야만 하는데 이 땅에서 헤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김치도 깨끗하고 옷도 깨끗하지만 김치를 옷에 담으면 둘 다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열개의 물두멍은 더러움을 깨닫고 번제단에서 죽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씻는 것은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는 것이고 씻은 희생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처럼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은 더러워진 나의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내 마음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꾸 나라 일이 걱정이 되므로 마음이 더럽혀 집니다. 마음에는 법궤가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서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려니 그룹이 상징하는 대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땅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 안에 들여놓은 것은 마치 부정한 것으로 먹지 말라고 규정된 돼지가 들어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부정한 돼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최우선적 관심의 방안으로 자녀를 담는 것과 같습니다. 귀한 자녀일지라도 내 마음에 자녀가 들어오면 돼지가 되고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 담으면 지성소에 돼지를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 걱정을 합니다.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기 위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그가 세우실 것이고 그가 능력을 가지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음에 담고 걱정하며 나라를 위한다고 움직이면, 마음의 지성소에 나라라는 이름의 돼지를 담은 것이므로 이것이 더러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몸을 씻는 바다가 뜻하는 바는 내가 손을 씻어야 함을 깨닫는 것이고, 열개의 물두멍은 내가 손을 씻지 않고 만졌음으로 인해 더러워졌음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졌음을 깨달을 때에야 번제단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마음의 지성소에 돼지를 담고 있었던 내가 죽음으로 비로소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담길 수 있는 지성소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왕궁건축 이야기와 두 기둥과 물두멍들 얘기를 성전건축 사이에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두 기둥이 뜻하는 바대로 행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큰 놋 바다가 뜻하는 대로 행하고, 앞으로 만들어질 열개의 물두멍이 뜻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에 만들어질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일인데 내가 소매치기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손을 씻고 더러워졌음을 깨닫고 번제로 죽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담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성소에는 분향단과 등대와 떡상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을 때에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는 그룹이 뜻하는 대로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나의 마음이 만나는 과정이 분향단이 뜻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떡상이 가르쳐주는데 하나님만으로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것인 이 세상 것을 소매치기하여 만족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바라는 떡상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등대가 뜻하는 대로 이 세상에 대해 눈이 떠질 만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눈이 떠지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마음에 담고 갖고 싶어할만한 것이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을 향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원은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것이 등대가 뜻하는 밝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었듯이 우리의 마음도 성전으로 지어지는 과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아침에 일어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실 일들을 내가 세우려 했음을 알고 손을 씻어야 함을 느낍니다. 내가 세상일을 붙잡고 염려 걱정함으로 마음이 더러워졌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는 성전이 되지 못한 것을 알고 번제단에서 죽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침저녁 상번제로 양이 죽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더러워진 내가 죽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세상과의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의 외곽을 만드는 것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했던 것처럼, 내 마음도 세상과의 단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이신 하나님은 두 그룹이 가리키는 대로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케이블로 연결된 케이블카를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분향단의 기도입니다. 떡상의 떡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만으로 배부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배가 불러서 세상을 바라보자 모든 삶의 분야에서 최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한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뿐인데, 이것이 밝은 눈과 마음으로 갖추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삶은 진행 될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과 성전의 바다와 물두멍과 모든 기구들이 뜻하는 것들의 의미를 함축하는 십자가 바라보고 기껏 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누구나 기껏 한 가지를 하다가 죽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내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하겠습니까? 십자가 생활화하는 가운데 피아노도 치고 공도 차고 사업도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